

대구특수기공사

“초절전형 사료배합기 다스막,
농가의 생산성 높여 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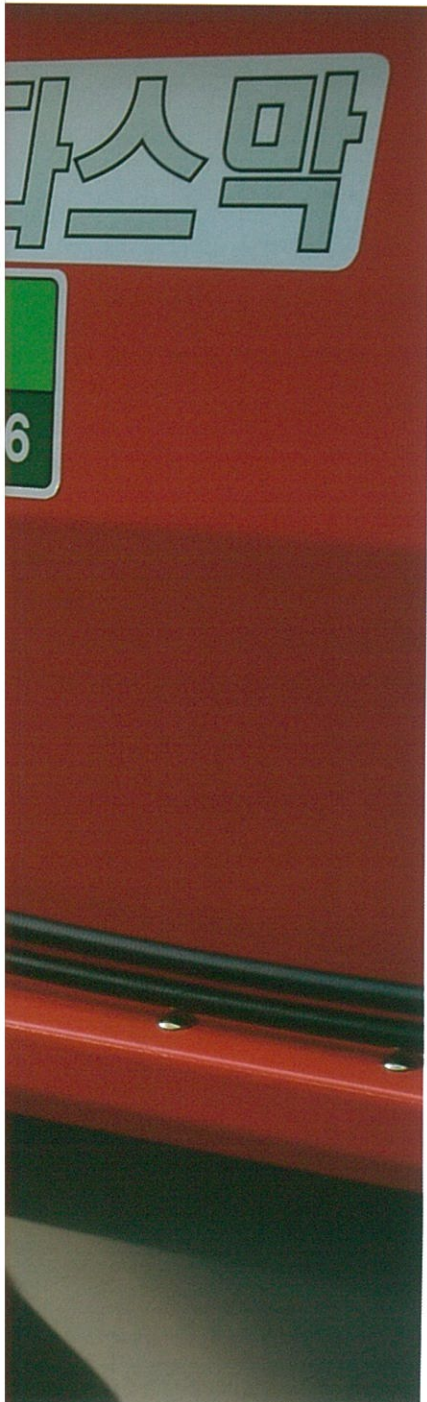
“제품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농가가 부자가 되고, 제품을 엉터리로 만들면 농가도 저도 함께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다스막(DASMAC) 사료배합기입니다.”
대구특수기공사(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의 함원환 대표는 농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매일 안전성과 편리성,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법을 고심하며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리아 에디슨’이 만들어낸 명품 사료배합기 ‘다스막’

1977년 시작된 대구특수기공사는 정밀함이 생명인 섬유기계 실린더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독일까지 수출하던 회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95년에는 3차에 걸친 공장 견학과 철저한 테스트를 통과해 ‘싸이징 실린더’를 일본 스미토모상사에 3년간 수출하기도 했다. 당시 찾아온 바이어들은 ‘일본에는 없는 최고의 기계를 만들었다’며 함 대표를 ‘코리아 에디슨’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고.

그러나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2008년부터 자연스럽게 사료배합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3년 만에 ‘다스막’ 제품을 출시해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다스막’ 제품은 크게 TMR 배합기와 발효사료 배합기인 TMF 배합기로 나뉘는데 고정식, 레일식의 형태로 제작됐다. 이밖에 강력한 힘과 전력 소모가 적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료급이기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ISO9001, ISO2000, ISO14001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융자 보조사업 대상 기종으로 선정돼 농가에서 구매할 경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기본 원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함원환 대표

켜들 정도'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스크류는 두 개의 부채모양 칼날과 중앙부분의 고정 칼날이 맞물려 돌아가며, 축간 1mm의 오차범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정밀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부하가 적어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빠른 절단과 배합이 절묘하게 이루어져 작업시간 단축 및 양질의 사료 생산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젓은 벧짚과 옥수수 베일을 통째로 넣어도 절단과 배합이 부드럽게 이뤄진다. 또한 스크류는 국내 유일의 오거 용접 전문기계로 축을 고정했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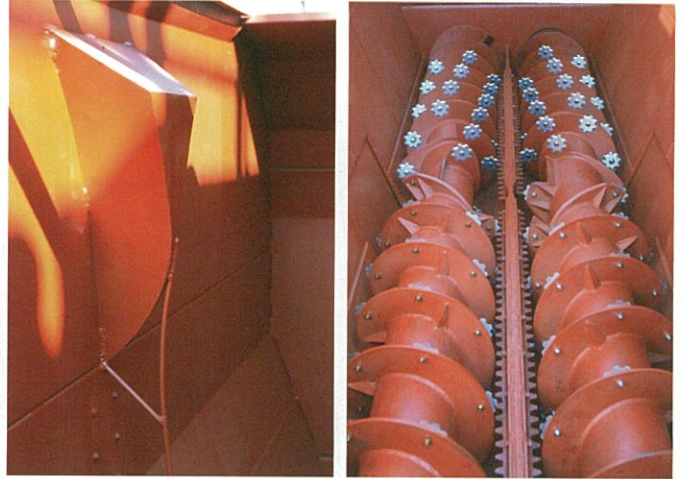
실제 2013년도 대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 당시 스크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대표가 부스에 찾아와 “내가 20년 동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지 못했다”며 “이 제품은 전 세계에 수출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스크류와 안전장치, '전문가마저 놀라'

다스막 사료배합기를 살펴보면 명품을 향한 함 대표의 집념이 엿보인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기존 기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그중 사료배합기의 핵심 기술인 스크류(오거축)는 '전문가마저 엄지손가락을 치

또한 실제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3개의 안전장치(비상스위치)와 리모컨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각각의 안전 스위치는 간단한 작동으로 위급 상황에도 쉽게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왔고, 리모컨은 원거리에서도 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

左. 사료의 배합능력향상과 넘침을 방지하는 분할챔버(특허기술)
 右. 다스막 사료배합기의 핵심기술인 스크류(오거축)



장갑차 기어박스 적용, 유압 동파방지, 내구성, 초절전 기능이 한곳에

다스막 사료배합기를 명품으로 꼽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제품이 3개의 특허(배합기의 흐름과 넘침을 방지하는 분할 챔버, 스크류 보강날개, 배합기 내 분진 비산 방지장치)와 다양한 기술의 집약 제품이기 때문이다.

먼저 핵심기술인 스크류 기술과 함께 중장비나 장갑차에 사용되었던 기어박스를 적용해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구성을 높였다. 또한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각 부분이 유압으로 작동하는 유압 레버와 실린더를 장착하고, 유압전용 히터를 부착해 겨울철 유압의 동파 방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에 스크류에 축가열 히터를 부착해

열이 고르게 발산되도록 했기 때문에, 사료 발효과정에서 외부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아 고품질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특히나 다스막 사료배합기의 가장 큰 큰 특징은 초절전형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배합기보다 기계 자체에 소비되는 힘을 최소화해 40% 이상 전력소모량을 줄였다. 구동부와 오거 축을 개선해 절단과 배합 시 기계가 받는 부하량이 적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였다.

“농가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푼이나 절약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요즘시대에 전기요금 절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다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할챔버에 대해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함대표



사용자 실수 외 A/S 극히 드물어

다스막 제품은 한번 출고되면, 농가들로부터 들어오는 A/S요청이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가끔 A/S가 있더라도 큰 돌이나 쇠덩어리가 걸려들어 가거나 철사가 말리는 경우 등 주로 농가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많았으며, 아직 농가에서 기계적인 결함으

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함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사용하기 어렵다”라며 “농가에서 기름칠을 한다거나 비나 눈을 피해 보관하는 등의 간단한 관리만 한다면 오래도록 다스막 사료배합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년째 다스막 사료배합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흑자를 보지 못해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신용을 쌓았고, 최고의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줄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